metro
메트로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제2643호

Entertainment p/20

자살로 끝난 '비운의 조성민'

Sports p/29

풀타임 출격 박지성 MVP

지난해 짤린 직장인 62만명

NEWS p/02

취득세 쇼크 아파트값 폭락

NEWS p/03

열애설 효과 '오자룡' 웃었다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제2643호 www.metroseoul.co.kr

김연아·아사다 3월 맞대결

화장품 브랜드숍 판매원
60~70% 외국출신 채용
중국어·일본어 등 술술술

치즈 올려 덜매운 떡볶이
소시지 꽂은 퓨전꼬치 등
길거리 간식까지 세계화

외국인이 바꿔 놓은 '명동의 한류'

혹한에 폭설까지 내렸던 지난 설날 오전, 오랜만에 서울 명동을 찾은 직장인 양민정(34)씨는 별세계를 만난 듯 깜짝 놀랐다. 쇼핑하기에 이른 시간인데도 중국·일본 관광객들이 미끄러운 빙판길을 부지런히 누비고 있었다. 양씨는 "화장품 매장을 갔더니 중국어로 인사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햄버거를 먹는 내내 한국 사람은 찾기 힘들어 마치 해외여행 중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울의 안방이라 할 명동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이다. 국내 화장품숍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팔고, 골목에 늘어선 노점상들은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춘 간식거리로 '세계 맛지도'를 그리고 있다.

명동 중앙로를 따라 늘어선 화장품 브랜드숍에선 요즘 한국말을 듣기 힘들다. 판매원들이 외국인으로 물갈이되고 있어서다. 명동에 매장을 5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잇츠스킨 등의 판매원 가운데 일본어나 중국어가 유창한 외국 출신 비율이 평균 60~70%, 많은 곳은 90%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중국인 판매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더페이스샵을 운영하는 LG생활건강의 김지숙 대리는 "일본인은 구매할 제품을 미리 적어놓고 쇼핑하는 데 비해 중국인은 매장 직원의 상담과 권유를 적극 수용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 중국인 채용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명동 쇼핑의 또 다른 재미인 '길거리 음식'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무한 진화 중이다.

떡볶이는 치즈를 올려 덜 맵게 만들었고, 큼짓한 떡꼬치엔 독일식 소시지를 꽂아 '퓨전 요리'로 변신시켰다. 통감자 사이사이로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소시지 회오리 감자'는 쇼핑으로 출출해진 관광객들의 배를 채워준다. 이 밖에 일본의 타코야키, 벨기에 와플, 중국식 호떡 등 명동 골목마다 토종 메뉴를 업그레이드한 '세계 음식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정모(48)씨는 "일본인들은 담백한 핫바를, 중국인들은 매콤한 양념 순대볶음을 좋아한다"며 "손님 열 명 중 일곱, 여덟은 외국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朴 당선인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 인수위 50일 활동 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명동이 '한류 쇼핑 1번지'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재빠르게 해외 진출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명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 매장을 연 CJ올리브영은 한국 식품과 한류 아이돌의 음반·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중국 진출을 앞두고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볼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를 비롯해 이랜드의 '스파오', 신성통상의 '탑텐', 에이다임의 '스파이시칼라' 등 현재 해외 진출했거나 검토 중인 국내 SPA패션브랜드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사가는 아이템을 눈여겨보며 구매 패턴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에 찰칵땐 문자 통보… '찍힌 사진'은 인터넷으로 확인

앞으로 자신의 불법 주차·과속 장면을 사진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10일부터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우편물을 받지 않고도 단속된 위반 사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통보 방식에는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 단속 촬영 사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아 개선한 것"이라며 "해당 홈페이지에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촬영됐는지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로도 알려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지며 범칙금·과태료를 실수로 이중 납부한 때에도 즉시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법인은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인터넷 조회와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 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별 조회·납부, 이의신청·환급 신청, SMS 신청 등을 선택하면 된다.

/정성화기자 unique@

자궁근종환자 절반이 40대

20대 미만 젊은 여성환자도 연평균 10%씩 증가

자궁근종 환자의 절반은 40대지만 젊은 환자 비율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의 2007~2011년 진료 통계에 따르면 자궁 내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 환자 수는 4년 사이 22만9324명에서 28만5544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했다.

2011년 기준 연령별 환자 비중은 40대가 47.9%로 절반에 육박했고 이어 50대(26%), 30대(19%) 순이었다. 진료비 측면에서도 40대가 전체 진료비의 50% 이상인 612억원을 썼다.

한편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20대 미만이 20.8%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환자 증가율 역시 20대 미만 환자가 2007년 10만명당 2명에서 2011명 3명으로 연평균 10.7%씩 가파르게 늘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자궁근종 형성 과정이 느린 편이라 40대 이후 이물감 또는 출혈로 증상을 감지한 중년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강검진 활성화로 20대 젊은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병이 높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짤린 직장인' 62만여명

지난해 이직 경험자 266만여명… 취업자의 11% 달해

지난해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66만여 명으로 실업자 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62만5000명에 달해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 취업자 수는 2378만7000명으로 이 중 266만2000명(11.2%)이 이직을 경험했다.

평소 취업자란 1년간 6개월 이상 취업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3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 월간 고용동향의 취업자 개념과는 다르다.

◆30대 이직 경험 26% 최다

이직 사유로는 가족 및 개인 사정이 109만6000명으로 41.2%에 달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근로·작업 여건 불만이 55만1000명(20.7%), 정리해고는 33만9000명(12.7%), 임시적 일 종료는 29만6000명(11.1%), 기타 29만1000명(10.9%), 사업 부진 8만9000명(3.3%)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이직 경험이 70만8000명(26.6%)으로 최다였으며 30세 미만은 25.3%, 40대 21.9%, 50대 15.4%, 60대 이상 10.7% 등이다.

근로·작업 여건 불만은 30세 미만 30.2%, 30대 25.2%, 40대 14.9%, 50대 14.9% 등이다. 경영 악화 정리해고는 30세 미만은 6.2%, 30대 4.9%, 40대 15.8%, 50대 18% 등을 차지했다.

/세종=기자 eleven@metroseoul.co.kr

서울도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2015년 신흥·흥일초 합쳐

빙벽 오르는 거미인간 국내 최대 규모인 충북 영동빙벽장에서 6일 산악인들이 깎아지른듯한 얼음절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통·폐합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금천구 시흥동의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를 통합하고 흥일초 자리에는 독산동 한울중학교를 2016년에 옮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두 학교가 통합되면 초중고를 통틀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학교 통·폐합 사례가 된다.

지난 2009년 강남구 일원동 영희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초등학교 거리가 300m에 불과하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 상태"라면서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비추 한포기 들고 30분 망설여 농산물값 급등 전국의 한파와 폭설로 농산물 가격 강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P 낮춰 2.9%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2.9%로 1% 포인트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최근 4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를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학(원)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 허용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에서 학부생이 연 200만원 한도로 생활비를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21일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연체 3개월 이하일 경우 15%에서 10%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17%에서 12%로 낮아진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 신청 기한은 5월 27일까지다. 문의 1599-2000

/세종=기자

난생 처음 눈밭 달리는 외국 청소년들 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출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드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보행용 덧신을 신고 눈 위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드림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눈과 얼음을 보기 어려운 지역의 외국 청소년을 초청, 동계스포츠와 한국 문화를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눈 나빠도 공군 조종사 된다

라식 수술로 시력 교정될 수 있으면 선발 하기로

눈이 나쁜 사람도 라식 수술로 공군 조종사의 꿈을 이루게 된다.

공군은 2014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지원자와 내년부터 비행 교육에 들어갈 조종 장학생, 학군사관 후보생(ROTC)의 선발 심사 때 라식 수술로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도 합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군은 최근 미국 항공우주의학교 연구에서 라식 수술의 항공의학적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이런 방침을 정하게 됐다.

미 공군은 2007년부터 라식 수술을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부작용 때문에 비행할 수 없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나 조종 장학생, ROTC 지원 이전에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우주의학 분야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군의관들이 시력교정 수술이 필요한 합격자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정밀 검사한 뒤 수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하기자 unique@

감면 종료로 취득세 다시 2배 오르자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값 쇼크

강남 6000만원 폭락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시장은 세밑 한파와 취득세 감면 종료로 꽁꽁 얼었다. 취득세 감면 종료는 사실상 취득세가 2배 오른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지오 공급면적 138㎡의 호가는 취득세 감면 영향력이 미치지었던 작년 11월 말 8억2000만원에서 올해 초 7억60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6000만원(7.3%)이 내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공급면적 128㎡는 11월 말 12억6500만원에서 올해 초 12억으로, 분당신도시 서현동 시범현대 264㎡는 10억25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각각 5.1%와 4.4% 떨어졌다.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되면서 매수세가 썰물처럼 빠진 것이다.

◆"즉시 감면연장" 목소리 커져

부동산114는 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이 0.02% 하락하는 등 2011년 2월 이후 22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다. 한파와 폭설로 거래 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0.02%) ▼신도시(-0.01%) ▼수도권(-0.01) 모두 내렸다는 것.

거래 동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를 추진하기로 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사지 않고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부추기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면 감면 혜택을 재개해도 되살리기 어렵다"면서 "인수위에서 취득세 문제를 우선 검토해 소급 적용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문 열고 영업하면 300만원

오늘부터 실내온도 20도 단속

7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계약전력이 100~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이나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시설이다.

특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난방과 영업을 동시에 하거나 전력 최대 소비 시간대인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사업장(6000여 곳)은 오전·오후 피크 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3~10%까지 감축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1만9000여 곳의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전 10~12시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순차적으로 난방을 멈춰야 한다. /채플유기자 eleven@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가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 신규가입 오늘부터 '스톱'

이동통신 3사 66일간 순차적 영업정지 돌입

7일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U+)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 13일까지(20일간)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3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출고가가 90만원대인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이용자 간 차별을 일으킨 결과,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휴대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고 기존 자사 가입자가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과 인터넷·IPTV 등 유선 상품 관련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이통사의 경제적 타격도 크겠지만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또 영업정지 이행에 관한 방통위의 감시를 등을 의식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의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7일부터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동통신시장 냉하기에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기자 zen@

16주째 하락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16주째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6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가격이 1867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242> 글·그림 박상철

朴 당선인 "인수위 최고 가치는 국민 삶"

김용준(왼쪽 둘째) 인수위원장이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0일간 공식활동 시작… "사명감 가져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하고 50일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현판식 및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와 당선인·인수위원 상견례 등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박 당선인을 비롯해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인수위원 24명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다음달 24일까지 새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으며 임명장 수여식 등에 참석해 "임명장은 국민들께서 여러분(인수위원)에게 드린 것"이라며 "국민들 기대에 맞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 가치는 국민의 삶이다"며 "50년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용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해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져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인수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첫 총리로 국민대통합, 경제통, 개혁성 등 박 당선인이 중시한 인선 키워드를 고루 갖춘 가운데 전문성과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민주 '3월 전대론' 탄력

9일 선출할 비대위원장 2개월 단명 가능성 커져

민주통합당의 쇄신 작업에 혼로를 거듭하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이 합의 추대 대신 투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쇄신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9일 당무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한길·원혜영·이종걸·이낙연·박영선 의원 등이 고사하거나 계파 간 이견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계파색이 옅은 박병석 국회 부의장이 원외지대 위원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당내 기류가 불안정해 결과를 알 수 없다.

더구나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3월 전대론이 탄력을 받는 시점에서 두 달 남짓인 임기 동안 쇄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극심한 내부 분열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등이 미지수다.

/김유리기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민주 "즉각 지명철회해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지명 철회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 인사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광 학
광고국회 작대	김 한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0-2100
독 자 센 터	02)721-9802

2000년 5월 2일 창간 2001.5.18 등록번호 서울가 00017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12	22	37	33	42	3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1,032,386,366
2등	5개 숫자 + 1등 보너스 숫자	77,139,315
3등	5개 숫자 일치	1,137,18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숫자 일치	5,000

박근혜 사회보장위원장 직접 맡나

복지가 핵심 국정목표 대통령직속 신설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지국가 실현이 박 당선인의 핵심 국정 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10여 개 부처가 290여 개 복지제도를 다루다 보니 중복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무턱대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위원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무총리실 직속보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복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여럿 있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안보보장회의 등 자문기구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의장 또는 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흔치 않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안철수, 미국서 두문불출… 文은 고향서 트위터 재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진심캠프 활동을 담은 백서가 이달 중순 출간될 예정인 가운데 안 전 후보의 행보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현재 안 전 후보는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딸 설희씨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는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출국한 후 보름 넘게 현지에 머무는 중이다. 안 전 후보가 스탠퍼드대학교 내에서 연구 과정을 밟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안 전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나 신당 창당, 연구소나 재단 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전 후보의 귀국은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반면 야권 단일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는 '트위터 정치'에 나섰다. 문 전 후보는 지난 4일 논란이 된 의원연금 예산 통과에 대해 "개만 취지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날 문 전 후보는 익명의 지지자로부터 편지와 캐리커처 책을 받았다며 트윗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전 후보는 대선 후 고향 양산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유리기자

"고노담화 수정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것"

美정부, 아베 정권에 경고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등 역사 인식을 수정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6일 보도했다.

이는 고노 담화 등을 수정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중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 언론도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 등 우경화 흐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3일 사설에서 "범죄를 부정하고 사죄를 희석하려는 어떤 시도도 일본의 잔혹한 전시 지배로 고통을 겪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수치스런 충동이 북한 핵 문제 등의 지역 이슈에서 중요한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우경화한 외교 안보와 교육 공약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정권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 수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총리 담화, 교육 개혁 등을 위한 각각의 전문가 회의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군국주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너무 야해서 보도불가'라더니…

다이애나 약혼전 사진속 남친 전 영국총리 증손자로 밝혀져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불가 판정을 받았던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과거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이 1920~30년대 영국 총리를 지낸 스탠리 볼드윈의 증손자 에담 러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ABC방송이 영국 도싯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러셀과의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러셀은 당시 사진을 더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당신들이 한 장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그건 수년 전 일이고 지금은 머리가 조금 더 짧기는 하지만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방송은 왕실 전기작가 앤드루 모튼의 말을 인용해 이들 둘은 단지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 개인 소장가가 7년 전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 데일리 미러에서 사들인 문제의 이 사진은 오는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지난해 영화관 총기난사 美도시 이번엔 주택가 인질극 4명 사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 규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NBC방송은 지난해 영화관 총기 난사 참사가 발생했던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5일(현지시간) 주택가 인질극이 벌어져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오로라의 한 주택에서 인질극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찰 당국자는 "전문가를 동원해 용의자와 전화로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면서 "사망자들과 용의자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아이폰5 국내판매 부진 갤럭시노트2에도 밀려

아이폰5가 국내에서 판매 부진에 빠졌다.

6일 이동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는 지난 4일까지 40만 대가량이 팔렸다. 단일 스마트폰의 판매량으로는 선전한 편이지만 이동통신사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7일 아이폰5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 이후 단 하루도 안 돼 예약 구입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아이폰5를 구입한 사람은 예약 구입자 수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또 갤럭시노트2의 1일 개통 대수는 1만7000대 안팎인 데 비해 아이폰5는 1만 대 수준이다. /박성훈기자

가계부채 先구조조정뒤 後부채탕감해야 효과적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탕감에 앞서서 금융기관 중심의 사전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6일 "가계부실의 확대로 금융기관이 부실을 흡수할 여력이 없거나 담보물권의 경매가 급증하면 빈곤층 양산, 금융기관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문제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전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2금융권의 만기를 장기(10년)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 다음 단계로 선별적 부채탕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 최종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성기자

모바일로 포털 검색 2배 증가

PC검색은 15% 감소… 인터넷환경 세대교체

IT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IT 업계의 기존 생태계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포털사이트 검색은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를 통한 검색은 두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이 증권업계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구글 등 5개 포털의 모바일 사이트 검색 쿼리(질의 횟수)는 지난해 1월 6억6000만 건에서 11월 13억 건으로 95.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같은 해 1월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PC를 통한 온라인 검색 쿼리는 51억3000만 건(1월)에서 43억6000만 건(11월)으로 15%가량 감소했다.

모바일 검색은 증가하고 PC 검색은 감소하면서 모바일과 PC 간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고 있다. 검색 규모는 여전히 PC가 많기는 하지만 모바일 검색의 급증 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모바일과 PC 간 검색 규모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포털사이트도 모바일 부문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민 중이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사이트의 경우 화면이 작아 광고 수단을 개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은 배너광고가 여의치 않아 검색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위치기반 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직화냄비가 단돈 8000원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 군옥수수 등을 집에서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직화냄비(24cm)를 시중 비슷한 제품보다 30% 저렴한 8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LG 올해 사상최대 20조 투자

채용도 1만5000명 유지

LG가 올해 그룹 창립 이후 사상 최대인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채용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설과 연구 개발(R&D)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마켓 리더로 자리 잡겠다는 복안이다.

LG는 계열사별로 총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인 16조8000억원보다 19.1% 늘어난 수치다. LG그룹의 20조원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 내역은 ▲시설 부문 14조원 ▲R&D 부문 6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사업부문별로는 ▲전자 부문 13조4000억원 ▲화학 부문 3조5000억원 ▲통신&서비스 부문 3조1000억원 등이다.

전자 부문에서 LG디스플레이가 초고해상도 모바일용 LCD 패널(LTPS) 생산라인 및 미래 제품 준비를 위한 OLED 산화물반도체(Oxide TFT) 생산라인 구축에 투자한다.

LG전자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R&D 및 생산을 담당하게 될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폰, TV 등 생산라인 강화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과 터치 윈도,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인쇄회로기판(PCB) 등의 생산라인 증설에 투자한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고기능성 합성고무(SSBR) 생산라인과 파주 LCD 유리기판 공장 생산라인 확대에 투자한다.

채용도 줄이지 않기로 했다. LG는 시장선도 사업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도 지난해 채용 규모인 1만5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지성기자 sungkim@

회사 접대비 8조 '기부금 2배'

중기는 10배 달해

지난해 기업들의 접대비가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들의 기부금은 4조원 수준으로 접대비의 절반에 그쳤다. 매출이 적은 기업일수록 기부금보다 접대비를 더 많이 썼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가 기부금의 10배에 달했다.

6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기업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회계연도에 46만614개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8조3535억원이다.

이는 44만23개 기업이 낸 2010년 접대비(7조6658억원)보다 8.97% 늘어난 것이다.

반면 2011년 기부금은 전년 대비 16.08% 늘었지만 접대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680억원에 그쳤다. 1개 법인당 접대비는 1814만원, 기부금은 883만원이다.

업태별로 보면 업체당 접대비는 금융·보험업이 4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업(2991만원), 제조업(2983만원), 도매업(1626만원), 전기·가스·수도업(1540만원) 등의 순이다. 기부금의 경우는 보건업(7237만원), 금융·보험업(6357만원), 전기·가스·수도업(4969만원) 순으로 많았다.

법인 규모로 보면 일반 법인(9만1514개사)은 업체당 접대비가 1309만원으로 접대비가 10배나 된다.

/김재상기자 lazyhand@

중소기업인 재기 '별따기'

재창업 신청자 10명 중 7명 지원 못받아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 재창업 지원 신청자 10명 중 7명이 다중 채무 까다로운 심의 절차 탓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은 지원이 승인됐고 46건(70%)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신복위의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은 경영 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 조정을 돕고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된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1억원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였다"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 곳만 동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대보다 신청자가 적자 금융위는 홍보 강화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단순 문의·상담은 1000건이 넘지만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청한다고 해도 과거 실패했던 사업 아이템을 그대로 내면 통과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출 담당 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측면이 있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상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K시리즈
차량교환 프로그램

"1월에 K시리즈 사면 1회 교환해 드려요" 기아자동차는 이달 K시리즈를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한 고객이 원하면 단 한 차례 같은 차종이나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아자동차 제공

20% 싼 주유소 설립 꿈 영근다

약정액 목표 1000억 돌파

기존 정유사보다 가격이 20% 싼 기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민석유회사 준비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 회사 설립에 청신호를 켰다.

6일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1일 인터넷(www.n-oil.co.kr)으로 시작한 인터넷 약정운동이 시작한 지 6개월여인 12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목표액 1000만 주,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민석유회사 준비위는 약정운동을 종료하고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석유회사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위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20% 싼 기름 공급 여부다.

준비위는 우선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값싼 저유황원유를 도입해 원가와 정제비, 운송비를 절감하면 기름 값을 20% 이상 낮춰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내 정유4사에게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겨주고 1조원 이상씩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면 10~20% 싼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기자

작년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SU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됐다.

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5개사가 지난해 판매한 SUV는 25만2622대로 전체 판매에서 21.3%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형 23만8107대(20.3%), 준중형 21만9188대(18.6%)보다 많이 팔린 것이다.

앞서 2011년에는 준중형(21.4%), 중형(20.4%), SUV(17.9%) 순으로 많이 팔렸으며 2010년에는 중형(25.8%)과 준중형(25.3%)이 SUV(18.2%)에 크게 앞섰다.

지난해 내수 시장이 2011년보다 2.9% 감소하는 등 침체되면서 준중형·중형·준대형·대형차는 일제히 판매가 줄었으나 SUV는 15.4% 늘면서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싼타페는 지난해 신형 출시로 201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인기를 끌었고 스포티지R, 투싼ix, 쏘렌토R, 코란도 C 등도 잘 팔렸다.

신차 시장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도 같은 추세였다. 최대 중고차 업체인 SK엔카에서 지난해 등록된 중고차 가운데 SUV가 처음으로 중형차를 제치고 1위를 했다.

업계는 SUV가 휴일 레저용 차량 정도로 인식됐던 시기를 지나 세단처럼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차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적재 공간이 넉넉하고 대부분 연비가 나은 디젤 모델이므로 실용성 측면에서 인기를 누린다는 분석이다. /박상훈기자

분양단신

'삼송 로얄듀크' 살아보고 계약

㈜동원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 A17블록에 짓는 삼송로얄듀크 를 '소비자중심 보증마케팅'으로 계약 취소분 등 잔여 세대에 대해 이와 같이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들이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이후에 정식으로 분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를 차로 4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북한산 조망 단지 주변으로 실개천이 흐르는 근린공원까지 교통과 조망 흠방 3박자를 두루 갖췄다.

문의:031)711-0002

이재현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주요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주식 평가액 증가율을 기록했다.

6일 기업분석 기관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30대그룹 총수 등 16명은 지난해 초보다 연말에 주식 평가액이 올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월2일 1조121억 6076만원에서 같은해 12월28일 1조 5097억 6798만원으로 49.16% 뛰었다. 조석래 회장(37.9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상훈기자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국회

오늘의 시선

현이윤 <칼럼니스트>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한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에 의원들이 자진해서 급여 인상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라고 한다.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0.5%, 연간 9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채 100만 원이 안 되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 의회도 지난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세비를 14% 자진 삭감했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 의원 정수 축소, 세비 30% 삭감, 의원 연금 폐지 등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의원 연금 폐지,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4대 개혁 과제 중 어느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올 예산안을 해를 넘겨 늑장 처리한 와중에도 의원 연금 예산 128억원은 통과시켰다. 세비도 한 푼 줄이지 않았다. 특권 포기는 선거용 입발림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기가 찰 일은 또 있다. 바로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다. 지역구 사업비를 5574억원이나 늘렸다고 한다. 반면 156만여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 보조액은 2824억원이나 깎았다. 미래신성장동력기술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쓰여야 할 연구 개발(R&D) 예산도 대폭 줄였다. 여야가 한통속으로 제 잇속을 챙기느라 저소득층 지원과 미래 성장 예산을 뒷전으로 밀어낸 꼴이다. 그러고도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은 "하나마나 한" 약속을 다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치쇄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열어 의원 특권 포기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할 일은 제대로 않으면서 잇속 챙기는 데는 이골이 난 의원들의 몰염치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는 재계가 화답할 때다

정론탁설

유병필 <논설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골을 방치하고서는 예기치 않은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연말연시를 민생 행보 어울림하다시피 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제단체를 방문해 던진 화두다. 지난 연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 살리기를 다짐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으로 거듭나도록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에서는 지난 연말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가장 큰 이슈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벌개혁이 도마 위에 올라 핵심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거의 재벌해체에 가까울 만큼 강도를 높였다.

다행히 대기업 정책에 비교적 온건적인 여당이 승리함에 따라 재계는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전경련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종의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이 거의 제시됐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이제 국민기업이라는 성격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걸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한 계획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과도한 경리해고는 물론 납품가격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든 이제 대기업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 주도형 '타의에 의한 개혁'이냐 아니면 스스로 성찰하고 '자의에 의한 개혁'이냐만 남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발적인 개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운은 아직 엿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넘어 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강령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흔히 지금까지 재벌 비판을 단순히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이 반발해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대적 요청에 대기업이 화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정서를 싹 틔울 수 있다.

포토프리뷰 나눔 실천하는 30일의 약속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새해를 맞아 일상에서 나눔을 결심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SNS 전용 나눔 캠페인 '30일의 약속(http://30.gni.kr)'을 지난 1일 오픈한 가운데 이 캠페인을 알리는 플래시몹이 5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차비 장사' 열 올리는 업체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김하권(35·주부)

지난 주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한솔어린이 뮤지엄에 갔다. 어린이 교육 전문업체에서 하는 체험형 학습이라는 말을 듣고 5살된 딸과 동행했다. 1시간30여 분의 수업을 마친 딸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주차요금 처리를 논하던 중 담당 직원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2000원짜리 주차권을 사면 2시간 무료 티켓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닌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음에도 주차비는 따로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아이에게 점심을 먹이고 간단하게 쇼핑을 한 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주차권을 넣었더니 4시간30분이 지났다는 문구가 떴다. 어쩔 수 없이 산 주차권을 넣었는데도 정산되지 않은 2시간30분 만큼의 주차비가 별도로 나왔다. 식사와 쇼핑에 들어간 돈은 그나마 주차 할인에 포함되지도 않아 1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주차비로 냈다.

100번양보해서 2000원짜리 티켓을 산다고 해도 2시간 무료는 너무 각박하다. 뮤지엄 입장료가 2만 5000원인데 공짜도 아닌 2000원짜리 티켓이 고작 2시간만 유효하다니. 주차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점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표기를 하든지, 신문·방송에 광고할 때 '이곳은 주차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넣어줬으면 한다.

요즘 주말에는 한파 탓에 타임스퀘어에 차가 몰려 주차하고 빼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린다. 주차시설 확충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업체가 주차비 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레미제라블 그리고 공화정 혁명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레미제라블 선풍이 불고 있다. '장발장'이라는 제목의 축약본을 주로 읽었던 이들이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다.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매력도 이 작품이 프랑스 혁명의 좌절과 성공 사이에서 고뇌하던 시대의 아픔과 갈망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인기의 한 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원작의 의미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도 민중은 여전히 가난과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왕정이 복구되면서 시대의 변화는 가로막힌다. 위고는 이러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법과 권력이 가하는 폭력에 희생되는 이들의 삶을 그려내는 동시에 이를 어떻게 돌파해나가야 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원작의 첫 대목은 미리엘 주교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75세의 미리엘 신부가 디뉴의 주교로 임명되면서, 그는 크고 장엄한 그의 사택을 바로 옆 병원과 맞바꾼다. 병자들을 보다 많이 수용하기 위한 그의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교의 수입 거의 대부분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준다.

도망자 장발장이 금 촛대를 훔쳐 나갔다가 붙잡혀 끌려왔을 때, 그건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촛대 하나를 더 주는 장면은 미리엘 주교의 인품이 감동적으로 극화되는 대목이다.

오늘날 노트르담 성당 안에 들어가면 보물전시장이 따로 있다. 거기에서는 금 촛대를 비롯해서 왕들이 들었던 금 십자가 등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일종의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당대의 현실에 이러한 보물들의 뒤에는 무수한 이들의 고통과 빈곤이 존재했다. 위고가 미리엘 주교로 하여금 장발장에게 주도록 한 금 촛대는 바로 이런 현실을 빗대었던 것이다.

루이 14세가 세운 베르사유 궁전의 한 건물에는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프랑스 혁명 뒤에 기록된 글이다. 더는 권력자가 아니라 '공화정을 통해 수립된 프랑스 전체를 위해서'라는 의미다.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들의 삶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화정 혁명의 근본 정신이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혁명의 좌절 앞에서도 "저들이 부르는 노래 그대는 듣고 있는가?"라는 대사가 울려퍼진다. 어두운 시대의 사슬을 푸는 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올레마켓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올레마켓 최신 무료게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월 2주차

최신, 추천게임과 함께하는

올레마켓 경품파티

이벤트기간 2013년 01월 04일 ~ 2013년 01월 17일

※ 다운로드만 받아도 이벤트에 참여 됩니다

홈런리그 베이스볼2013 모비안

문화상품권 1만원
200개

손바닥삼국지2 아이프리스튜디오

시그니처 핫초코 Tall
392개

액퍼배틀3D 컴투스

버거킹 와퍼세트
289개

크레이지미사일 피엔제이

스노우쿠키앤 크림
327개

레전드 오브 디펜스2 모비릭스

초코가 달콤한 시간 - 케익
400개

새해 선물폭탄!!
다운만 받아도 선물이 날아온다!!

절벽·해변 어우러진 '쉼표 파라다이스'

수백미터 치솟은 기암괴석 클라이밍 아찔··섬과 섬 사이 카약투어도 짜릿

태국의 끄라비(Krabi)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간직돼 있는 곳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곳이다.

꽈타이, 사무이, 푸켓에 비하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카르스트 지형이 해안에는 7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조개 화석층으로 인해 수백 미터까지 치솟은 기암괴석이 즐비하다. 인근에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피피섬과 일명 '치킨 아일랜드'로 불리는 꼬까이 섬 4개의 해양국립공원이 있다. 예전에는 스노클링과 다이빙,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찾아오던 소박한 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석회암 절벽과 어우러진 이국적인 해변을 만끽하기 위해 각국의 여행자들이 모여든다.

태국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아오낭은 끄라비에서도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약 1km 길이의 길게 뻗은 해변을 따라 해안도로와 산책로가 있으며 여행자들의 편의시설도 몰려 있다.

아오낭의 주요 여행사에서는 각종 투어상품을 판매하는데 투어를 하려면 최소한 하루 전날에 예약을 해야 한다. 끄라비 인근의 섬들과 해변을 들러 카약과 스노클링, 수영을 즐기는 상품은 뷔페식 점심식사도 제공돼 추천할 만하다. 라이레는 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암벽 등반 장소다. 라이레의 리조트나 해변 근처에 자리한 클라이밍 사무실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암벽 등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끄라비 타운에 있는 백화점과 주변 노점 식당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일요일에 열리는 주말 시장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는 물론 수공예품과 공연을 볼 수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후 5~10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끄라비 여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바다도 맑아 휴양이나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선보인다. 5월부터 시작되는 우기는 10월 말 즈음에 끝난다.

/끄라비(태국)=글·사진 이유미기자 lhe3415@metroseoul.co.kr

끄라비로 가는 방법은 한국에서 직항은 없고 방콕을 경유해 항공이나 육로로 이동하면 된다. 타이항공과 에어아시아가 매일 3회 방콕~끄라비 구간을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편도 1시간20분이다. 버스로는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방콕 버스터미널에서 24석의 999 VIP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여행 정보는 태국관광청(visitthailand.or.kr)에서 얻을 수 있다.

타파웨어 냉장기세트 출시

타파웨어 브랜즈가 디자인과 구성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냉장기 플라워 세트(10pcs)'를 출시했다.

타파웨어의 냉장 전용 시리즈에 화사한 색감을 더한 것으로 옐로, 오렌지, 그린, 블루의 4가지 컬러를 입혔다. 기존의 주니어·미디엄·쿨 냉장기 세트에 2ℓ 용량의 쿨 냉장기 2개를 추가해 실용성과 제품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다. 반찬 보관용으로 쓰임새가 많은 작은 용량의 주니어 냉장기는 기존 3개 구성에 1개를 더 추가했다. 문의: www.tupperware.co.kr·080-023-8811

하와이 여행권 크게 쏩니다

'웅진플레이도시' 이벤트

실내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3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웅진플레이도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laydoci.com)를 통해 경품 대잔치에 참여하는 고객 중 총 3333명에게 하와이 커플 여행권, 삼성 스마트 TV 등을 선물한다. 또 다음달 11일까지 현장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스티커를 증정, 개수에 따라 워터파크&스파, 스키&보드, 눈썰매 50%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준다. 현장 매표소에서 워터도시 이용권을 3인 이상 동시에 발권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3주년 기념 달력을 제공한다.

고객 우대 행사도 다양하다. 이달 말까지 생일 고객은 40% 할인해주고, 여대생 3명 동시 입장 시 워터파크&스파 혹은 스키&보드를 3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파격 행사를 벌인다. 문의: 1577-5773

원하는 문구·디자인등 인쇄 국순당 고객맞춤 선물세트

국순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포장에 고객이 원하는 문구나 디자인을 추가해주는 '고객 맞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사 문언이나 업체명, 로고 등을 넣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전달할 수 있는 선물세트다. 국순당의 명절 인기 선물세트인 '프리미엄 자양강장 선물세트'와 '명작 선물세트' 등 총 8개 품목에 적용된다.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고객 맞춤 선물세트를 신청해도 추가 비용은 없다. 추가할 문안이나 로고 디자인은 해당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문의: www.ksdb.co.kr

평창 응원하면 행운이 펑펑

휘닉스파크·메트로신문 휘팍에서 2018 준비하라

휘닉스파크가 메트로신문과 함께 '휘팍에서 2018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라'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 메시지와 설원에서 찍은 커플사진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휘닉스파크 리프트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 기간 중 수시로 발표하며 총 30명을 선정한다. 이번주에 뽑힌 사연을 소개한다.

◆당첨 사연1- "몇 해 전 와이프와 처음으로 찾은 휘닉스파크.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잠시 쉬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보드에 도전하려고요. 여보! 보드 타면서 육아 스트레스 날려버리자~ 고마워! 그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ID 윤○정

◆당첨 사연2- "어릴 적 함께 썰매를 타며 마냥 신나했던 우리 형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됐네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려고요. 우리 형제 파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ID 이○구

스키어·보더의 천국 '휘팍'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스키, 보드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총 23면의 슬로프 중 12면의 FIS 공인 슬로프를 비롯해 광활한 스키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스키어와 보더를 위한 하프파이프, 난이도별 점프대와 레일 등이 설치된 익스트림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렌탈용 보드 장비를 '버튼'의 최신 데크로 교체하고, 지방 무료 셔틀버스를 구미·청주·대전·대구·부산 등으로 확대 운영해 더욱 편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88-2828

HNT 하나투어리스트

www.hanatourist.com

H웨딩

커플당 100만 하나투어 마일리지 적립

하나투어가 만든 웨딩컨설팅 브랜드 'H웨딩'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부터 허니문까지 한 번에!

ONE-STOP 웨딩&허니문으로 예약하세요!

하나허니문 상품을 '이미' 예약하셨나요?

하나투어 마일리지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국내/해외 모든 여행 서비스 | 쇼핑/교육/공연 | 생활 서비스

H웨딩 허니문 고객상담팀 02)2127-1234

■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만성위장병 앓는 당신…혹시 담적병?

스트레스 등 유발…위장 굳어지고 전신질환까지
위담한방병원 "원인 못찾는 중증 위장병 다수 의심"

위암은 우리나라 장기 암 중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위암의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중증 증상과 함께 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느껴도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만성 위장병을 앓아왔고, 두세 가지 이상의 다른 잔병들을 앓고 있다면 담적이라는 중증 위장병이자 전신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위담한방병원 최서형 대표원장은 "위암이 되기 직전의 원인을 못찾는 중증 위장병의 상당수는 위벽 속에 독소가 쌓여 생긴 담적을 치료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과로, 술, 폭식, 담배 등으로 인해 위기 빨가지면 위 점막이 훼손돼 노폐물이 쌓이고 쌓인 노폐물은 다시 독소로 변해 위장을 굳게(경화) 만든다.

그런데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독소(담)가 위장 벽 곳곳에 스며들어 각종 위장병을 일으킨다.

게다가 내버려두면 악성으로 변할 확률이 높다. 위장의 독소가 관,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까지 퍼지면 중풍질환, 내시질환,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전신질환까지 일으킬수 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담적병 치료는 담 독소를 제거하고 경화된 위장을 녹이는 담분해 발효한약과 온열 고주파 요법을 적용한다.

담분해 발효한약 요법은 위장과 소장에 낀 담 독소를 분해하고, 경화된 장기를 녹이도록 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또 위장에 혈액 공급을 강화해 위쪽 근력을 강화하고, 점막을 보호하며 점막을 보충하는 것을 돕는다.

만성 환자의 경우 체내에 고주파 열을 투과, 담적의 굳어진 조직을 녹인다. 최 원장은 "위암 조기 증상과 비슷한 담적 증상이 있다면 위암과 같은 중병이 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연지기자

담적병 진단 체크리스트

- □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다
- □ 머리가 자주 아프다
- □ 눈이 침침하다
- □ 건망증이 심해졌다
- □ 뒷목이 뻣뻣하다
- □ 항상 피곤하다
- □ 여성의 경우 냉,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
- □ 속이 메스껍다
- □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 □ 어지럽다
- □ 눈 주위가 뻑뻑하고 통증이 있다
- □ 얼굴색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 □ 어깨에 담이 결린다
- □ 구취(입냄새)가 심하다
- □ 잘 체한다

(5개 이상에 해당되면 담적병 의심)

안약으로 예방접종 받는 시대 열리나

국가과제 지정…상용화 추진

안약으로 감염형 예방접종을 대신하는 기술이 국가 과제로 지정돼 상용화가 추진된다.

기존 주사제 형태의 장티푸스 백신을 안약 형태로 개발하는 '점안제 감염 병원체에 대한 점안형 백신 개발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선정돼 향후 5년간 3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안약 방식의 예방접종은 무엇보다 안약처럼 사용이 쉬우면서도 안전하게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고, 반복 접종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주사와 달리 통증이 없어 아이들의 거부감이 덜하다는 이점도 있다. 특히 신종플루처럼 대규모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경우 상당 시간이 필요한 주사제와 달리 짧은 시간에 대단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안과 서경률 교수팀은 "점안백신은 눈에 가려움증이나 염증 등의 부작용이 없고, 뇌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차세대 예방접종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은지기자 dion7@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한국화이자 새 패키지 출시

한국화이자제약이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작은 제형과 새로운 패키지를 출시했다.

리피토 작은 제형은 기존 제제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길이, 넓이, 두께 등 모든 면에서 크기가 줄어들었다. 모양도 기존의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 제제에서 동그란 모양으로 변형됐다. 리피토의 기존 용량인 10mg, 20mg, 40mg, 80mg 모두에 적용된다.

손톱 흰색 띠면 만성간염일수도

이대목동병원 '병이 보내는 증상표' 발표

이대목동병원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가 각 질환별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병이 보내는 증상표'를 발표했다. 표는 눈, 손톱, 안색, 가래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이대목동병원 김정숙 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소장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질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표를 참고하되 증상이 발견됐을 때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눈

한쪽 눈에만 시야 장애가 생긴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눈자위가 노란색을 띨 경우 간질환이나 담도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눈의 수정체가 흐려져 눈동자 속이 희게 보이는 증상은 후천적 백내장일 경우 나타날 수 있다.

가래

피거나 분홍색 거품의 가래가 나오면 폐부종이나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다. 가래의 색이 진한 황갈색이나 검은색이면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결핵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무색 투명한 가래가 생길 경우 급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일 가능성이 있다.

손톱

손톱이 흰색이라면 만성 간염이나 영양결핍, 노란색을 띠면 황달이나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진균증과 같은 곰팡이 감염일 경우에는 손톱이 검은색을 띨 수 있다.

안색

피부가 창백하면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 폐렴, 폐암, 천식 등 폐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도 안색이 창백해질 수 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담도질환이 있으면 황달과 같이 안색이 노란색을 띨 수 있고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소변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올 경우 요로나 전립선 염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평소 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신장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

대변

대변이 초록색일 경우에는 식중독이나 급성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 또 대변이 검은색이면 위출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변에 붉은 피가 섞여서 나오면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이나 항문근처의 치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김은지기자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체험이 있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탐방열차는 서울역(청량리역) – 강원도 영월 – 정선 – 태백 – 정동진 – 경북 봉화 – 영주 풍기 – 충북 단양 등을
거치는 코스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하얗게 수놓은 백두대간의 눈꽃 장관은 겨울 여행만의 운치와 낭만을 가슴가득 담아드릴 것입니다.

강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곳!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강원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십시오.

태백산 및 석탄박물관 → 365세이프타운 → 정선5일장 → 선돌 → 청풍 → 청령포 → 선암마을 → 정동진 해돋이

경상북도

전통의 향기가 살아있는 곳!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경상북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부석사 → 소수서원과 선비촌 → 풍기인삼시장 → 봉화승부역 → 청량산도립공원과 청량사

충청북도 단양군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 휴양관광도시 충청북도 단양으로 떠나보세요.

온달관광지 → 다누리 아쿠아리움 → 도담삼봉 → 장회나루 → 단양고수동굴 → 소백산

12월 여행

22일, 23일(당일)
- ※ 태백편(대인 43,000원 / 소인 46,200원)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 & 영월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5일(당일)
- ※ 영주 1편(대인 48,000원 / 소인 47,000원)
- ※ 영주 2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 ※ 단양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8일(무박 2일)
- ※ 영주편(대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 ※ 봉화편(대인 65,000원 / 소인 63,000원)

29일(무박 2일)
- ※ 단양편(대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1월 여행

12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2일(무박 2일)
- ※ 영주편(대인 59,000원 / 소인 56,000원)

19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9일(무박 2일)
- ※ 단양편(대인 54,000원 / 소인 52,000원)

26일(당일)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7일(당일)
-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5일(당일)
-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 영주편(대인 45,000원 / 소인 45,000원)

※ 상기 일정 및 요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비 포함내역 : 왕복열차비, 연계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 신청 및 문의 : 코레일관광개발 02)2084-7786 www.korailtravel.com / 경상북도관광공사 054)740-7332 www.gtc.co.kr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자작곡으로 음원차트 올킬

박명수가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어떤가요'에서 선보인 자작곡으로 음원차트를 올킬했다.

5일 정식 발매된 박명수의 자작곡 중 정형돈의 '강북 멋쟁이'를 톱으로 유재석의 '메뚜기 월드'와 하하의 '섹시 보이'가 각종 음원차트 1~3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한편 소녀시대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는 5위권으로 밀려났다.

'V콘서트' 개최 – 강남 마비

소녀시대가 강남역 일대를 마비시켰다.

소속사는 6일 "5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엠스테이지에서 3차원 홀로그램으로 구성된 소녀시대 V 콘서트가 열렸다"면서 "실제 멤버들이 공연하는 것처럼 현실감 넘치는 영상으로 인해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 직후 멤버들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중국서 청춘 에너지상 수상

배우 이현우가 4일 '2013 긍정에너지의 밤'에서 청춘에너지상을 수상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가에닷컴이 주최하고 절리안 칭-우자룽-중리티 등 유명 연예인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현우는 현재 김수현과 함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촬영 중이다.

고베서 일본 투어 스타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고베에서 새해 첫 일본 투어의 화려한 막을 올린다.

김현중은 6일 오후 5시 일본 고베월드 기념홀에서 진행되는 '제펜 투어 2013 언리미티드'의 첫 번째 무대를 위해 5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고베를 시작으로 사이나마 나고야 후쿠오카 등 일본 각 도시를 돌며 공연한다.

카라가 오프닝곡 '판도라'로 도쿄돔 입성을 알렸다

1회 공연에 매출 100억! 여성 아이돌 신화 쏘다

도쿄돔 단독 콘서트 카라

신한류 선두 주자 카라가 한국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도쿄돔 무대를 밟았다. 6일 열린 '카라사이 2013 해피 뉴 이어 인 도쿄돔'에는 일본에서 숱한 기록을 쏟아냈던 이들의 2년5개월간의 활약상이 모두 펼쳐졌다.

4만5000좌 열광의 춤 돌색

공연장이 암전되고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발표한 '판도라'를 부르며 카라가 등장하자 4만5000여 관객은 폭풍을 일으키듯 함성과 함께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본 최대 실내 공연장에 우뚝 선 이들은 위용을 과시하듯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랑받은 메가 히트곡들로 레퍼토리를 채웠다. 오리콘 차트 사상 해외 여성그룹 최초의 1위 곡 '제트코스터 러브'를 비롯해 '스피드 업' '걸스 파워' '렛미트 리 보이' '고 고 서머' 등 4개의 오리콘 2위 곡을 선곡해 거대한 합창을 끌어냈다.

시간을 거슬러가듯 최신 히트곡들로부터 데뷔곡까지 차례대로 무대를 선사했다. '프리티 걸' '스텝' '허니' '록 유' 등 국내 히트곡들까지 한국어로 따라 불렀으며 '엉덩이 춤'으로 카라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는 이날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도쿄돔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좌우 커버에 부른 솔로 무대에는 다섯 가지 개성이 다채롭게 묻어났다. 다섯 멤버는 꿀벅지를 자유자재로 돌리는 섹시한 안무로 남성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는가 하면 때로는 깜찍한 미소와 애교로 마음을 녹였다.

신비주의 아이돌이 아닌 친구처럼 자유분방하고 소탈한 매력을 앞세웠다. 카트를 타고 객석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했다.

"현지서 최고·최초 수식어 계속 올핸 유럽 등 세계로 날고 싶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지영, 니콜, 규리, 승연, 하라(왼쪽부터)

일본 데뷔 2년 5개월의 기록

2010년 8월 '미스터'로 일본에 데뷔한 카라는 2년5개월간 현지음악 시장에 끊임없이 신기록을 양산했다.

데뷔곡이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톱 10(5위)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제트코스터 러브'로 해외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오리콘 주간차트 1위, 1990년대 이후 일본 노래방 해한국 1위, 지난해 첫 일본 투어 전석 매진 등의 기록을 세웠다.

이어 이번 도쿄돔 4만5000장의 티켓을 예매 시작 5분 만에 모두 매진시키며 기록의 정점을 찍었다.

공연 티켓 매출만 48억원(약 4억 엔)에 이르며 공연장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매출은 이를 넘는다. 이날 한 회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서트 소감과 목표는

규리(25)·승연(25)·니콜(22)·하라(22)·지영(19) 등 다섯 멤버는 공연 1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쿄돔 무대를 밟는 벅찬 심경을 밝혔다.

규리는 "일본에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차트 순위 등 '최초' '최고' 와 같은 수식어를 많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생긴다"며 "우리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라 팬들이 많은 사랑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더 멋있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K-팝 합동공연에 참여하며 한 차례 도쿄돔에 서봤던 이들은 "당시에도 큰 규모에 놀라고 숨이 멎추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단독 콘서트라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떨리는 마음을 전했다.

최근 싸이가 K-팝 대표 가수로 급부상한 가운데서도 카라는 일본에서 최고 인기 한국 가수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니콜은 "일본 친구들이 싸이 선배님에 대해 많이 물어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선은 한국과 일본 활동에 전념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다른 지역에 진출하고 싶다. 특히 유럽 팬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라는 "일본 데뷔 당시 목표가 NHK '홍백가합전' 출연과 도쿄돔 단독 콘서트였는데 빠른 시간에 모두 이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도쿄돔 2회 공연도 가능한 팀이 됐으면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림없이 도전하겠다"고 새해 목표를 전했다.

/도쿄=유순호기자 sure@metroseoul.co.kr

끊이지 않는 최진실가의 비극사

최진실 최진영

고 최진실·최진영 남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전 남편 조성민까지 생을 마감하면서 이들 가족사에 비극이 더해졌다.

1988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데뷔한 최진실은 2000년 다섯 살 연하의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과 화촉을 밝혔다.

그러나 2002년 조성민이 "이혼하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사업 실패와 불륜·가정 폭력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결혼 3년9개월 만인 2004년 파경을 맞았다.

최진실은 이혼 후에도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등 히트작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을 계속했으나, 고 안재환에게 사채 빚을 제공했다는 루머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 2008년 10월 당시 40세의 나이로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듬해 8월에는 경기도 양평에 안치된 고인의 유골함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2일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은 "최진실이 꿈에 나타나 이장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이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0년 2월에는 남동생 최진영이 논현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조카를 친자식처럼 양육하며 연예활동 재기를 다짐하고 있었기에 비보는 더욱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3년 뒤인 1월 6일 조성민 역시 도곡동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불과 5년 사이에 엄마와 외삼촌, 아빠를 모두 떠나보내야 했던 환희·준희에 대중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권보미기자 kwon@

조성민 마저…'자살 쇼크'

욕실서 목매 숨진 채 발견…두산 재계약 문제·경제적 어려움 등 겪어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이 6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성민은 이날 오전 5시26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샤워꼭지에 허리띠로 목을 맨 채 여자친구 A씨에 의해 발견됐다. 이 아파트는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곳이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데다 조성민이 사망 전날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받았고, 주변에 문자 등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점으로 미뤄 자살에 무게를 싣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조성민은 오전 0시11분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살 길이 없네요. 아들 없는 셈 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0시16분 A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그동안 고마웠다. 꿋꿋이 잘 살아라"고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진실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지

니 환희·준희 남매에겐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입어라"는 말이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성민의 모친은 오열 끝에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최진실의 사망 후 손주들을 도맡아 키우던 남매의 외할머니 정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굴곡 많았던 인생

조성민은 평소에 비극적인 가정사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그는 폭행과 외도 논란 속에 최진실과 파경을 맞았고, 최진실은 200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줬다.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유족과 떠들썩하게 갈등을 빚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넘겼다. 이후 방송에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등 당시 큰 심적 고통을 겪었다.

일적으로도 굴곡이 많았다. 짧은 현역 생활을 마치고 배설기와 사업가에 도전했고, 2005년엔 한화에 입단하며 야구선수로서 재기를 노렸으나 연이어 좌절을 맛봤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에서 2군 코치로 새출발했으나 지난달 초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즈음 도곡동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폭행 시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성민의 전 에이전트 손더기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빈소는 모교인 고대 안암병원에 마련됐으며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이 부검될 예정이다.

/박준형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스타A '관물대 여친앓이'

이장우·오연서 열애설 후 시청률 희비

'오자룡' 웃고 '우결'은 울고

이장우·오연서의 열애설 효과로 '오자룡'은 웃고 '우결'은 울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연 중인 MBC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는 3일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시청률 12.5%(AGB 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행불력 이준과 오연서가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인 '우리 결혼했어요'는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5일 방송에서 8.2%를 기록,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우결' 제작진 측은 "오연서 본인을 만나 확인한 결과 스캔들은 사실 무근이었다. 이준·오연서 커플 출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하차설을 일축했다.

오연서 측 역시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열애설 보도 초반에 소속사가 이장우와의 열애설을 인정했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다.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면서 "이 일로 5월까지 [illegible]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kwon@

연예가 소곤소곤

▶휴가 못 나와 사진으로 만족

스타 군인의 배우 중 여성 교제가 연예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군 생활 중인 스타 A도 여성 연예인 B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에 관심이 쏠립니다. A의 관물대에는 B의 사진이 붙어져 있고, 그 사진에는 '내 사랑'이라는 A를 향한 B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A는 같은 내무반 선후임 장병들에게 이를 자랑하기도 해, 둘의 사랑은 부대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A는 모범 장병으로 소문났지만 자주 휴가나 외박을 나가지도 못하고 B의 사진만 바라보며 힘든 군 생활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데요. 비·김태희 커플을 바라보는 A와 B의 심경은 누구보다 특별할 듯합니다.

▶못생긴 개그맨 C, 미녀에 인기

역시 미녀는 개그맨을 좋아하나 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C의 연애가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친구와의 열애가 알려져 화제를 모은 그는 그 직후 공개에 대한 부담 탓에 안타깝게 이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별의 아픔에 기사가 노 전인 그해 가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는 개그맨 중에서도 유난히 인물이 달리는 편인데요. 유머 감각과 편안함으로 여자들을 확 사로잡는다는 후문입니다.

▶라이징 스타 D 연기자 데뷔할 듯

라이징 스타 D의 연기 도전 전망이 밝은 듯합니다. D는 평소 인맥이나 태도가 예의 바르지 못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독특한 매력 때문에 탄탄한 지지층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 작품의 원작 작가 역시 'D가 하는 짓마다 예뻐 죽겠다'며 공공연하게 팬임을 자처하는 등 복히 방송 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D가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그의 연기 데뷔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배두나 "박지성과 열애 글 속상"

할리우드 진출작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두나가 지난해 불거졌던 축구스타 박지성과의 교제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배두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성 씨와 사귄다는 내용의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한 뒤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뒤 '클라우드' 촬영을 마치고 잠시 머물던 영국 런던에서 만나 (박지성에)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다길래 함께 탔을 뿐"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이어 "함께 걸어가는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매우 유쾌하지 못한 대중의 반응이 전해졌다.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정말 속상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블락비·소속사 전속계약 공방…누가 맞나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 측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수익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데다 대표는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겨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스타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했던 것뿐"이라면서 "가수 부모들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도 대표이사를 사칭한 매니저가 저지른 일이니 이를 사건화할 경우 블락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락비는 2011년 싱글앨범 '두유 워너 비'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초 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자숙 기간을 갖고 있다. /김보름기자

'소속사 분쟁' 강지환 '돈의 화신' 출연 확정

소속사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강지환이 SBS 새 주말극 '돈의 화신'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SBS는 4일 "강지환이 '돈의 화신'에서 사채업자의 돈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오른 남자 이차돈 역을 맡았다"면서 "캐릭터의 냉철한 면과 내적 갈등을 표현할 배우로 강지환이 가장 적합했다"고 캐스팅 배경을 밝혔다.

'지이아' '[illegible]' 등 [illegible] 부부 작가와 유인식 PD가 손잡은 이 작품은 '청담동 앨리스' 후속으로 다음달 2일 첫 방송된다. /[illegible]기자

윤시영

이수현, 방예담, 이찬혁(왼쪽부터)

'K팝 스타2' 이찬혁·수현 남매·방예담 눈길 '보이스 키즈' 윤시영 두각

오디션 프로 천재 소년·소녀 '돌풍'

천재 소년·소녀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장악했다.

우선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에서 열일곱 살과 열네 살 남매 이찬혁·이수현으로 구성된 악동뮤지션과 열한 살의 소년 방예담 군이 눈에 띈다.

악동뮤지션은 세련된 작사·작곡 실력과 매력 있는 목소리로 한계청을 인정받은 것도 모자라 자작곡 '다리꼬지마'와 '매력있어'로 방송을 넘어 음원 차트까지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방예담 군 역시 천부적인 리듬감과 매력적인 미성으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천재 소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 둘은 이 프로그램의 3사 엔터테인먼트 캐스팅 오디션 진행에서 각각 YG 양현석과 JYP 박진영의 선택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만 6~14세까지 참가하는 엠넷 '보이스 키즈'에도 천재 소녀·소년들이 등장했다.

그중 4일 첫 방송에 등장한 열한 살의 뮤지컬 신동 윤시영 양이 단연 돋보였다. 폭발적인 성량과 청아한 음색으로 서인영·윤상·비스트 양요섭 등 심사위원들의 전원 합격을 이끌어냈고, 방영 직후 인터넷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앞서 엠넷 '슈퍼스타3'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선사해 주목받았던 소녀 손예림의 추천으로 등장한 천재 인도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아들의 활약에 힘입어 이날 시청률은 평균 시청률 2.2%(AGB닐슨미디어 엠넷KM 투니버스 합산)로 케이블TV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박진형기자 talk427@

새해 극장가는 꽃중년 시대

톰 크루즈·김윤석 등 국내외 40~50대 인기배우 출연 영화 봇물

이완 맥그리거·톰 크루즈·김윤석·류승룡 (위 시계방향)

국내외 인기 미중년 배우들이 새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다.

박신양(45)은 9일 개봉될 '박수건달'로 생애 첫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신내림을 받은 건달 광호로 나와 긴드러지는 목소리에 짙은 아이라인 화장을 불사하는 등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한다.

톰 크루즈(51)와 이완 맥그리거(42)는 17일 공개될 '잭 리처'와 '더 임파서블'로 맞대결을 펼친다. 크루즈는 전직 특수부대원 잭 리처 역을 맡아 오십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렬한 액션을 소화하고, 맥그리거는 태국 쓰나미에 휩쓸려 뿔뿔이 흩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장으로 눈물샘을 자극한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는 국내 연기자들이 차례로 스크린에 나선다.

류승룡(43)과 한석규(49)는 24일과 31일 개봉될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에서 여섯 살 지능의 아버지와 국가정보원 요원을 연기한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도둑들'의 1000만 관객 흥행 신화를 주도한 김윤석(45)과 이정재(40)는 2월 7일과 21일 공개될 '남쪽으로 튀어'와 '신세계'에서 철없는 무정부주의자와 범죄 조직에 잠입한 비밀경찰을 각각 열연한다. 이 밖에 크루즈와 동갑내기인 최민식과 황정민(43)도 '신세계'에서 이정재와 삼각편대를 이룬다.

한 영화 홍보 관계자는 "국내외를 통틀어 남자 배우들에게 40~50대는 연기력과 스타성이 무르익는 시기"라며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이들의 이름값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남경주 김소현 이상현 Jun. K 김민종 규현

Jun. K·이창민·규현 등 달타냥 캐스팅

더 화려해진 뮤지컬 '삼총사'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 잡은 '삼총사'가 올해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다.

뮤지컬에 첫 도전장을 내민 아이돌그룹 2PM 멤버 Jun. K를 비롯해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는 2AM의 이창민, 슈퍼주니어의 규현, 혜성처럼 나타난 신예 박진우, 초연부터 함께해온 엄기준이 5인 5색의 달타냥을 뽐낸다.

뮤지컬의 전설 남경주가 신성우·이건명과 함께 아토스 역을 맡고, 김민종이 만능기 손준호와 아라미스로 분해 생애 첫 뮤지컬 무대에 오른다. 프르토스 역은 뮤지컬 배우 김법래와 조순창이 열연한다.

달타냥의 첫사랑인 콘스탄스 역에는 원더걸스의 실력파 보컬 예은과 MBC '위대한 탄생 3'의 멘토 김소현, 폭발적 가창력의 소유자 제이민이 합류한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삼총사'는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프랑스 왕의 친위부대 삼총사인 아토스·포르토스·아라미스의 모험과 우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렸다. 2009년 초연부터 매년 공연 예매 랭킹 1위에 오르며 16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캐스팅과 웅장함을 뽐낸 올해 무대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다. 1차 티켓박스는 11일 오픈한다. 문의 02)764-7857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송지효 애니 '해양경찰 마르코' 더빙 도전

송지효가 '해양경찰 마르코'로 애니메이션 더빙에 도전한다.

다음달 14일 개봉될 '해양경찰 ~'에서 그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 블루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극중 블루는 주인공인 해양경찰 마르코(이광수)의 첫사랑으로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도전 의식이 강한 캐릭터다.

송지효는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광수와 티격태격 장난스러운 신경전을 벌이며 팀을 탄작하는 등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또 자유자재로 음색을 달리해 스태프로부터 "처음 더빙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스태프의 이 같은 칭찬에 "잔소리를 쏟아낸 이광수 탓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웃음) 무척 재미있는 작업이었다"며 "모두가 잘 이끌어준 덕분이다.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준기자

現 한의사 송진호 소장이 개발한 "세미닥터"

100%

당뇨! 98,000원이면 완치?!

만성 고혈압(169mmHg)이 단 7일만에 정상(89mmHg)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뇨, 고혈압!! 7일 무료체험!!

26년동안 노력끝에 개발했습니다!!

협압약과 같이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보세요!!

現 중원한의원 원장 한의사 송진호
원광대학교 한의과 졸업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당뇨병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모든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에 기재된 누에, 조선시대판 비아그라가 따로 없네!!

송진호 세미닥터 유사품에 주의!!!

각종 주요언론에 소개된 누에의 효능효과

- ■ 누에고치 추출 펩타이드 당뇨 파킨스 병에 효과 (– 이데일리경제 2010 10 29)
- ■ 누에분말 혈당조절기능식품 인정받아 (– 연합뉴스 2009 09 08)
- ■ 누에분말서 혈당강화 물질생산 (– 매일경제 2000 12 04)
- ■ 누에분말 당뇨병 치료제로 부상 (– 연합뉴스 1998 06 16)
- ■ 수컷 누에 번데기서 발기촉진물질 추출 (– 국민일보 2004 06 22)
- ■ 누에 수컷에 천연비아그라 (– 경향신문 2004 06 22)

누에는 21세기 불로장생식품!! 국내외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 병원도 못고친 당뇨 누에로 싹!!

송진호 세미닥터 이런분께 권합니다

출시기념 50% 할인

- 세미닥터는 당뇨병에 매우 뛰어나다!
- 혈당강하에 특효다!
- 고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 동맥경화에 탁월하다!
- 정력, 발기력을 향상시킨다!

당뇨, 고혈압 7일 무료체험 실시!!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7일동안 무료로 드셔보시고 구매결정 하세요!!

무료체험신청 1566–4526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동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 합니다.

영어 동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의 이름은 뭔가요?
당신의 이름은 철자를 어떻게 쓰나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이분은 마이어스 씨입니다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s your name?
How do you spell your first name?
His name is David Spencer
This is Mr. Meyers
Very nice to meet you.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이분은 is Mr. Meyers. He is my boss.
B: How are you doing, Mr. Meyers?

정답: This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s his [first / last] name?
2. How do you spell your [last / first] name?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furniture	명 가구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점
look	명 외관, 모양 동 보다, 보이다	take[have] a look at ~을 보다
management	명 관리, 운영 manage 동 관리하다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
means	명 수단, 방법 mean 동 의미하다	every means possible 가능한 모든 수단
participant	명 참가자 participate 동 참여하다	an active participant 적극적인 참가자
performance	명 공연, 연주, 수행 perform 동 수행하다, 공연하다	musical performance 음악 공연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7번 문제 유형 파악하기

• When 의문문 유형: "~은 언제 열리나요?"

When 의문문의 답변 포인트는 '언제'에 해당하는 날짜이다. 일정은 대부분 차트의 시작 부분 혹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When 의문문의 질문 내용과 답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히 전치사를 사용하여 올바른 날짜 및 요일 정보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자.

> Q: **When** will the meeting **be held**?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 답변 포인트 / 질문의 내용
>
> A: It will be held **on Tuesday, October 13th.** 그것은 10월 13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 핵심 답변

질문에서 When을 듣고 차트에서 When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찾는다. 차트에서 '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Tuesday, October 13th이다. 이것을 완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개최되다'의 동사 표현 be held, take place와 날짜의 전치사 on을 잘 활용해야 한다.

ex. It will be held on Tuesday, October 13th.
It will take place on Tuesday, October 13th.

What's Hot

CJ제일제당의 '다시다 육수명가'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건강한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끓는 물에 다시다 육수명가 한 개를 넣고 1~2분 정도 끓이면 재료고 간편하게 오랜 시간 푹 끓인 깊고 진한 육수로 다양한 국물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일반 가정은 물론 캠핑, 레저 등 야외 활동을 하는 아웃도어족에게 인기 활용이다.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4개입 3400원, 8개입 6500원이다.

에뛰드하우스는 8일까지 홈페이지(etude.co.kr)에서 '동안광채 333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총 3만명의 고객에게 '님프광채 볼륨 동안 광채밤' 샘플과 정품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주는 쿠폰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님프광채 볼륨 동안 광채밤'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LG전자가 졸업과 입학철을 앞두고 '2013년 LG PC 아카데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일체형 PC를 구입하면 잉크젯 복합기(모델명: LIP2230)를 제공한다. 또한 울트라북 구매 고객에게는 ▲노트북 가방 또는 고급 파우치 ▲무선 마우스 ▲16GB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증정하고 탭북(모델명: Z160) 고객에게는 7만원 상당의 LG BA(Balanced Armature) 밸런스드 아마추어 이어폰을 준다.

윈도우 애저, 게임 '아틱 컴뱃' 플랫폼으로

효과 입증… 전세계 서비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인 윈도우 애저가 웹젠의 1인칭 슈팅게임(FPS) 배터리 온라인(BATTERY Battle Territory)의 글로벌 버전인 '아틱 컴뱃(Arctic Combat)'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채택돼 한 달 동안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시아 일부 국가와 중동 및 남미를 제외한 전 세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아틱 컴뱃 글로벌 공개 테스트를 통해 윈도우 애저는 빠른 속도 및 시스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공개 테스트를 통한 게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지역별로 집중한 결과 프레임이 끊기거나 게임 지연 등 사용자 불만족은 한 건도 없었으며 빠른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웹젠의 기술 검토 과정에서 미국, 유럽, 한국, 아시아 지역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속도 테스트 결과 윈도우 애저를 이용했을 때가 직접 구축한 서버로 서비스를 했을 때보다 4배 정도 빠른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과 남미 지역에서는 2.5배 이상 속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남기고 스포츠 시계 받고

타이맥스 페이스북 이벤트

미국의 시계 브랜드 타이맥스가 2013년 새해를 맞이 11일까지 '신년맞이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고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시계 전문 편집 매장의 장을 연 갤러리어클락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2013년', '타이맥스', '스포츠(또는 피트니스)'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재치 있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고급 스포츠 시계를 증정한다.

한편 타이맥스는 보다 과학적인 레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시계 브랜드로 공식 수입원인 갤러리어클락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galleryaclock.co.kr

업계 첫 110세까지 보장 장기간병 전문보험 출시

LIG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최장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간병 전문보험 신상품 '무배당 LIG 110 LTC간병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가 된 경우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평생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기존 100세까지였던 간병보험 보장 기간을 110세까지로 늘렸다.

15세부터 최장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가입 시 보험료의 1%, 3인 이상 가입 시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줘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기에 좋다.

송해 기업은행 모델 1년 더

새 TV광고 '고객' 편 선봬

IBK기업은행은 방송인 송해와 광고모델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새로운 TV 광고 '국민 모두의 은행-고객'편을 선보인다.

이번 광고에는 지난해부터 IBK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송해와 아역 탤런트 김유빈 외에 실제 고객 2명이 모델로 함께 등장한다. 이들 2명의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 광고의 영향으로 기업은행에 여윳돈을 예치한 중년의 여성 고객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취업 포털사이트 잡월드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라는 광고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광고를 통해 실제 거래 고객이 되고 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을 직접 등장시켜 메시지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이번 새 광고의 주안점을 뒀다.

비만 탈출 힐링캠프 참가자를 모십니다

독합 발효 전문 기업인 락넥스기 겨울방학을 맞이 2013년 신년 맞이 이벤트로 '비만 탈출 힐링 캠프'를 연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비만 프로젝트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비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만 캠프 장소는 락넥스의 힐링타운인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되며 캠프 일수는 3박4일~9박10일 등으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락넥스 공식 카페(cafe.naver.com/anyzyme4u) 및 공식 블로그(blog.naver.com/anyzyme4u) 등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33-435-3472)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경희사이버대 '문단 등용 산실'

신춘문예 당선자 4명 배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13 신춘문예 당선자 4명을 배출했다.

문학일보 신춘문예에 08학번 정지우 동문이 '오늘의 의상',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10학번 신은숙 동문이 '히말라야시다'로 수상했다. 또한 경상일보 신춘문예에 10학번 배은정 동문이 '소나기',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04학번 정유정 동문이 '피도는 지봉'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는 문단 등용의 산실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4~5명의 등단자를 배출하고 있다.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50여 명의 재학생·졸업생이 문단에 데뷔하고 각종 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그 전통을 빛내고 있다. 2011년에는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전공을 신설한 바 있다.

What's New

매일유업의 프리미엄 분유 앱솔루트 센서티브가 23일까지 홈페이지(absolute-mask.com)에서 두 번째 모유 캠페인 사진전을 진행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 모유 수유 사진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열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사연이 소개된다. 또한 퀴즈 이벤트 및 소셜 댓글 참여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작품을 본 후 퀴즈를 맞추는 참여자 전원에게 머일 포인트 500점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앱솔루트 센서티브 한 캔, 한 명에게는 보바 캐리어를 증정한다.

한국연합복권 주는 지난달 31일과 1월 2일 양일간 전국 주요 지하철역에서 손난로를 전하는 거리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연금복권520을 발행·판매하는 한국연합복권(주)의 직원 및 관계자들이 아침 출근시간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로 2013년 새해를 맞아 연금복권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닥터멜걸에서 신제품 비장새난 두피팩을 출시했다. 두피팩은 강력한 흡착력과 정화력으로 두피 케어와 다량의 미네랄 성분으로 모근에 영양분을 공급해 탈모가 지연되고 굵어져며 신생모 또한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풍성한 모발을 느낄 수 있다. 대용량의 500g과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180g 등 두 종류다.

농심의 남자라면 광고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영화배우 류승룡을 모델로 한 남자라면 광고는 유튜브(YouTube)에 올려지자마자 하루 만에 20만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현재는 70만 건의 조회수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503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남자라면은 지난 2012년 신제품 라면 중 2100만 개(월평균 215만 개)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210.77점! 피겨 진수 뽐냈다

김연아 세계선수권 티켓 획득 … "국내 팬들에 좋은 무대 선봬 기뻐"

"여왕의 분격" 피겨 여왕 김연아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 여자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7년 만의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

김연아는 6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끝난 제67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에서 총합 210.77점으로 우승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4.97점을 받아 선두를 달렸던 그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0.79점과 예술점수(PCS) 75.01점, 합계 145.80점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NRW트로피 대회(201.61점)에 이어 연달아 200점을 넘겼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손에 쥐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4000여 관중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경기장에 들어선 김연아는 '레미제라블' 곡에 맞춰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가볍게 성공했다.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서도 가산점을 챙겨 기분 좋게 출발했다.

경기 시간 절반이 지나 10%의 가산점이 붙는 구간에서 트리플 러츠와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성공해 가산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대회에서 엉덩방아를 찧은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도 깔끔한 착지로 가산점을 받았다. 또 레벨 1에 그친 마지막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에서 레벨 4를 받아 내며 복귀전의 아쉬움을 모두 날려버렸다.

경기 후 김연아는 "쇼트에서 64점대에 그쳐 200점은 어렵다고 생각해 점수 욕심을 내기보다는 할 것을 잘하자는 생각으로 경기했다. 미지막에 국내 대회에서 팬들 앞에 좋은 연기를 보인 것 같아 기쁘다"며 "준비한 것을 다 해낸다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연아의 다음 발걸음은 3월 캐나다 런던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로 향한다.

이에 따라 김연아의 아사다 마오는 2011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2년 만에 맞붙게 됐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해 일본 선수권대회 우승 자격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다.

한편 박소연(강일중)이 161.98점으로 준우승했고, 최다빈(강일중)이 153.09점으로 뒤를 이었다.

/위문희기자 mlsdo@metroseoul.co.kr

10구단 신청 오늘 마감

프로야구 10구단 신청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0구단 회원 가입 신청서를 7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통신 기업 KT와 전라북도 일원을 홈으로 삼은 부영그룹은 이날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KBO는 외부 인사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KT는 서울과 가까운 수원을 연고로 관중 동원에서 앞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부영은 수도권에만 5개 구단이 몰려있어 프로야구 균형 발전에 저해된다며 KT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민준기자

이청용 새해 첫 골 폭발

선덜랜드전 선제골 시즌 5호

'블루 드래곤' 이청용(25·볼턴·사진)이 해외파 새해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청용은 6일 열린 선덜랜드와의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서 전반 12분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지난달 30일 버밍엄과의 챔피언십 경기 후 2경기 만에 득점포로 챔피언십 4골을 더해 이번 시즌 득점을 5호로 늘렸다. 볼턴은 선덜랜드와 2-2로 비겼다.

골닷컴은 이청용에 대해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기회를 살려냈다"고 평가하며 평점 3을 부여했다.

김보경(카디프시티)은 매클스필드와의 64강전 출전명단에서 제외됐고, 팀은 1-2로 져 탈락했다. /김민준기자

2개월 만에 풀타임 박지성 경기 MVP

FA컵 웨스트브로미치전 선발 … 주장 완장 벗고 공수조율

'해외파 맏형'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이 오랜만에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박지성은 6일 오전 영국 런던 로프터스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의 2012~2013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64강전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다. 그의 선발 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에버턴전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하지만 박지성의 왼팔에 주장 완장은 없었다. 이날 QPR을 이끈 주장은 수비수 클린트 힐이었다.

주장을 동료에게 양보한 박지성은 경기장 곳곳을 오가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때때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그는 전반 27분 골 지역 안쪽에서 때린 왼발 발리슛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는 아쉬운 장면도 연출했다.

QPR은 0-1로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에 키런 다이어가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려 1-1로 비겼다. 두 팀은 조만간 재경기를 치른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경기 후 "부상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박지성이 예전의 부지런한 경기력을 다시 보여줬다. 전방으로 활발하게 패스를 연결하는 등 공격 본능을 과시했다"고 평가하며 평점 3.5(5점 만점)를 매기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 /김민준기자

"저리 비켜" 박지성(오른쪽)이 6일 열린 잉글랜드 FA컵 64강전 웨스트브로미치와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가브리엘 타마스와 몸싸움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